

본당 소식

2025년 1월 교황님 기도지향 : 교육을 받을 권리

이주민과 난민과 전쟁 피해자들이,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는 데에 필요한, 교육받을 권리를 언제나 존중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 미사 및 친교 나눔 이후 뒷정리를 철저히 합니다.
- ♣ 대구대교구 뿌에리 칸포레스(Pueri Cantores)의 밀라노 한인성당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미사 후 뿌에리 칸포레스에서 준비한 '작은 음악회'가 있습니다(성전 안).
 - 작은 음악회가 끝나고 지하 강당에서 친교 나눔이 있겠습니다.

♣ 2024년도 회계 결산 보고

- 총수입: 30,939.18
- 총지출: 27,646.33
- 잔액: 3,292.85(2024년 12월 31일)
- 총잔액: 11,016.93(2023년 이월 잔액 7,724.08 포함)

♣ 구정 설 합동위령미사 안내

- 민족의 명절인 구정 설(1월 29일)을 맞아 오는 26일 주일 미사는 설 합동위령미사로 봉헌됩니다.
- 영성체 후 연도 및 분향 예절 있습니다.
- 미사 후 합동세배 및 음식 나눔이 있겠습니다.

♣ 모임/회의

- 성모회: 다음 주일(19일) 미사 후

♣ 봉사자

- 계단, 화장실: 변의용 베네딕토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244,20€ • 교무금 400,00€

전례 성가

입당: 우리는 목장의 백성이로세 / 구명림
 봉헌: Adoramus te Christ / G. P. da Palestrina
 성체: Become God's Story / A. Pote
 파견: Confitemini Domino / P. Drennan

전례 봉사

이번 주일(1월 5일)	다음 주일(1월 19일)
1독서: 변의용 베네딕토	1독서: 안희관 요셉
2독서: 구희선 스텔라	2독서: 이경진 카타리나
복 사: 강윤이 스텔라, 정이한 다윗	복 사: 안태오 마태오, 변가인 헬레나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 사목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 부회장: 김재의 미카엘 · 총무: 박건욱 레오
- 전례위원장: 이민찬 비오 · 성모회장: 김효경 릿타 · 외교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 청년구역장: 진하림 글라라
- 1구역장: 유정연 릿타 · 2구역장: 허희숙 마리아 · 3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2025년 1월 12일 (백) 주님 세례 축일

미사 전례

본기도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저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으니 겉모습만이 아니라 내면에서도 저희가 그분을 닮아 새로워지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화답송



주 - 님 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 하느님의 아들들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 주님께 드려라.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
- 주님의 소리 물 위에 머무네. 주님이 넓은 물 위에 계시네. 주님의 소리는 힘차고, 주님의 소리는 장엄도 하네. ☉
- 영광의 하느님 천둥 치시네. 그분의 성전에서 모두 외치네. “영광이여!” 주님이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네.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

제1독서 (이사야서 42,1-4.6-7)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1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는 이, 내가 선택한 이, 내 마음에 드는 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리라.
 2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그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도 않으리라.
 3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 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
 그는 성실하게 공정을 펴리라.

4 그는 지치지 않고 기가 꺾이는 일 없이 마침내 세상에 공정을 세우리니
섬들도 그의 가르침을 고대하리라.
6 ‘주님인 내가 의로움으로 너를 부르고 네 손을 붙잡아 주었다.
내가 너를 빚어 만들어 백성을 위한 계약이 되고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였으니
7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 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 주기 위함이다.’”

제2독서 (사도행전 10,34-38)

그 무렵 34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35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 주십니다.
36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만민의 주님을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을
37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래아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 일어난 일과,
38 하느님께서 나자렛 출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 주신 일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복음 (루카 3,15-16.21-22)

그때에 15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16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21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22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삼위일체이신 주님, 세례성사로 새로 난 주님 자녀들을 굶어살피시어, 그들에게 강
복하시며,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2.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로자이신 주님, 오래도록 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는 저희 겨레에게 일치의 성령을
보내시어, 새로 밝은 이 해에 남북이 다시 화해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3. 예비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구원자이신 주님,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교회를 찾은 예비 신자들
을 돌보아 주시어, 마침내 주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4.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 갖가지 문제로 갈등하는 부부들을 굶어보시어, 그들이 지혜의 은총
으로 서로 존중하며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면서 참사랑을 누리도록 도와주소서.

영성체 후 기도

주님,
거룩한 양식을 가득히 받고 주님의 자비를 간청하오니
저희가 성자의 말씀을 충실히 따르며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